

투데이 칼럼

PLS제도 잔류허용기준 0.01ppm,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적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없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무역장벽이 없어지며 다양한 수입농산물이 증가, 수입농산물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수입농산물 안전성 확보, 농식품 경쟁력 제고와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하게 됐다.

PLS제도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는 제도로, 등록 안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0.01ppm을 적용,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 하는 제도이다.

또한, PLS제도 시행에 앞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에게 PLS제도를 정확히 알리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부적합 피해를 최소화하



정수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T/F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범 정부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농업인 입장에서는 PLS제도가 시행되면,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적은 작물도 많고, 비산과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약 직권등록 확대, 잠정기준, 그룹기준, 환경기준 등 보완대책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생산단계 즉, 농장에서 출하 전

안전성조사를 하여 출하 가능여부 확인, 생산농업인은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후 안전하게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인들은 작물에 허용된 농약만 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내년 농산물에 적용하는 PLS제도에 의한 잔류농약 검출로 출하연기, 폐기, 과태료부과 등 단 한명의 농업인이라도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PLS제도가 정착한 일본, 유럽, 대만,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PLS제도가 정착되면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줄어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자재언

노인 교통사고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예방해야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사고는 '15년 105명, '16년 107명, '17년 11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 전라북도 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6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였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서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 노화가 찾아오게 되고 순간적인 상황 판단 능력의 감소와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다른 보행자와 비교하여 그 피해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 운행시 주의를 가지고 운전하는 방어운전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노인 보행자들을 위한 교육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꼽자면 노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단횡단 단속 등 교통법규 단속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예방 효과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환기와 고취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아파트 경로당과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공원에 직접 찾아가 안전보행 3원칙 등 교통안전수칙에 대해서 어르신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실제 교통사고 발생 사례 등을 설명해주어 진정성 있게 교육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해야한다.

다음으로 보행자들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마음가짐을 떨쳐 내야한다. 보행자 한 두명이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안전수칙에 따라서 올바른 시민문화를 조성해야한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때이다. 정제훈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국경장벽 접근한 중미 이민대열에 최루탄



25일 티후아나에서 멕시코-미국 국경에 접근했다가 경찰에 끌려나오는 중미 이민. 이 날 캐러밴의 이민 몇명이 미국쪽 국경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미군 경비병들이 최루탄을 발사, 이민 행렬의 아이와 여성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한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했다. 이 말은 전북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말하는 다른 힘 있는 자들에게도 주는 말이다. 그리고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도 주는 말이다. 지금 함께 뛰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도민들은 내년도 전북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 관심이 크다.예산 증액이 예년 같아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고분자 연료전지 센터 등 421건의 사업에 7천868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새로운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앞으로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전북의 문제는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군산 지역은 여태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군산 현대조선 재가동 문제만 해도 그렇다. 재가동 가능성을 간보듯 이야기하는 이들은 많아도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 어떻게 성사시켜보려는 이가 없으니 많이 아쉽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폭넓게 뛰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새만금 국제 공항 건설 문제를 비롯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지금,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2% 부족함' 나날이다.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다들 생각해볼 일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각 시군 지자체를 격려하면서 더욱더 힘내야 한다. 그리고 산업 분야 활성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에 전북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 고분자 연료전지 센터 등 421건의 사업에 7천868억 원이 목표라고 발표한 만큼 모두 다 함께 성공 신화를 만들어야겠다. 도민들은 그 온전한 실현을 위해 현실차게 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북형 일자리 만들기 잘 돼가고 있는가

전북형 일자리 창출 준비가 어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말이다. 도지사는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말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었다. 지역 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세운 것이며 17개 과제 대상을 이야기한 것이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책'을 도입하려 했던 게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대통령은 저번에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그리고 정부는 일자리 미려운 위해 23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격려이다. 전임 정부 때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 욕심이 왕성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물음이다.

전북도가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지만 젊은이들의 불만 소리가 여전하다.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반비례하여 관청은 일자리가 적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여러 번 말했던 바 전북형 일자리 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전북형 일자리 찾기는 글자 그대로 퍼터지는 경쟁이 아닐 수 없게 돼 있다. 전북의 전북형 일자리 성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면 다른 광역시도들이 나중에 자기 지역 쪽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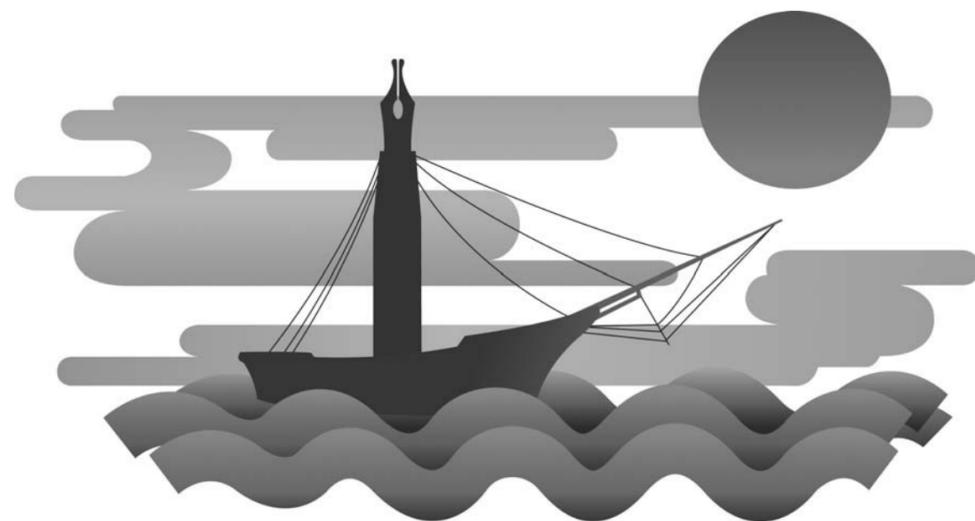
도민들이 전북도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제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이 관청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다. 본보는 도내 근로자의 40%가 넘게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도는 취직 자리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도민들은 전북형 일자리 창출의 성공 신화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